



‘항생제 계란 파동’ 소송전 비화되나

항생제 함유 면역증강제 판매 제약회사, 보상절차 진행 계란 폐기 등 직접피해 입은 농가 12곳에만 2억 지급 간접피해 보상 요구 수용 안해... 농가 등 2곳 소송 준비

‘항생제 계란 파동’이 완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며 먹거리 안전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약회사에서 직접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만 마무리하고 간접피해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란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보상금 지급도 일부 완료됐다. 지난달 초 항생제 성분을 포함한 면역증강제를 판매한 제약회사로부터 2억 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항생제가 검출된 농가 5곳의 계란 40만여알을 포함해 자체 폐기한 농가 7곳 82만여알에 대한 보상금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2차 간접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생제 계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수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농가와 유통판매업체 등의 주장이다.

이에 농가 1곳, 유통판매업체 1곳 등 총 2곳에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도는 전했다. 항생제 성분 첨가에 대한 책임은 제약회사에 있는 만큼 간접피해 보상금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주변의 목소리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19일 도내 한 산란계 농장 1곳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0.00342mg/kg)돼 긴

급회수 조치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검출 원인은 제주도가 공급한 면역증강제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도는 “면역증강제에 항생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혼입 경로를 파악한 결과, 제약회사에서 엔로플록사신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먹서기를 공유하다 섞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보상 당시 간접피해액을 포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농가 등에서 민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으로 문제를 가려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지난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년정책 예산의 유사사업 중복 집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기금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도의회 제공

“청년예산 592억 유사사업 중복 편성”

도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서 청년기금 설치 필요성 제기

제주의 청년정책 예산 590여억원이 유사사업에 중복돼 기금을 설치하고 별도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애월읍)은 지난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 예산이 592억원(2019년 1회 추경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되면서 중복편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는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2년부터

제주지역 청년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훈련기회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청년정책 예산은 지원대상·유관기관·유사사업별 중복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정책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청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다만 현재 제주도의 경우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비율이 높고, 기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고려해 기금설치 필요성과 별도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내용의 명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금 수혜 청년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제주청년 지원기금 DB 구축,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금 사업 운영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표성준기자

구좌읍 송당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

도, 8일자로 사업 지정·고시 오는 2021년까지 78억 투자 영농체험·판매시설 등 포함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지역특산물 판매하고 영농체험 등의 시설을 갖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송당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5월 8일자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휴양단지는 (주)에스엔가든(대표 김우석)이 총 7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6만7000㎡ 부지에 농업 전시시설·학습관 등 기본시설과 볼

문화원·다목적 잔디마당 등 휴양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영농체험시설(제주자연 체험장, 특산물체험장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0월 사업자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기속사규도 축소 검토,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주차장 확대 조성 계획, 지역주민 고용 확대 등 보완 요구의견으로 수정 가결된 후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지정·고시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조성될 예정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심의, 사전 재해영양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폐기됐던 ‘보고서’ 공개에도 파장 여전

제주공항 확충안 내용 담은 ‘ADPI’ 보고서 원문 공개 안전 등 제시안 배제 이유 밝혀

반대측 “혼선... 번역 공개” 15일 검토위 회의 쟁점 될 듯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가 10일 공개됐지만 갈등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일 열린 제2

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폐기된 것이 확인돼 논란을 불렀다가 최근 영어 원문이 공개됐지만 의혹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의 협조 요청에 의해 ‘제주 제2공항 ADPI 하도급 보고서’ 관련 항공대 컨소시엄 입장문과 ‘ADPI 하도급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됐다. 항공대 컨소시엄(이하 용역진)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며, 보고서의 주

요 내용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ADPI가 제시한 세가지 안은 ▷현행 주활주로 활용 극대화 ▷주활주로에서 210m 또는 380m 이격 평행활주로 신설방안 ▷보조활주로 활용 교차활주로 방식 등이다. 용역진은 1안의 경우 ‘제주공항인프라 단지 확충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2안은 수요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적절하고 사업비도 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3안에 대해서는 교차활주로의 용량으로 수

요처리가 어렵고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 동선 충돌 우려 등 관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2안과 3안은 이러한 이유로 배제했다는 이야기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은 “입장문에는 ADPI 보고서에서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활용했을 때 충돌이 우려된다고 제안한 것처럼 비쳐져 혼선을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ADPI 원문 번역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검토위의 회의 등의 쟁점으로 ADPI 보고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위는 오는 15일 제3차 회의, 같은 날 오후 제1차 토론회를 갖는다. 이소진기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가동

사업계획·예산 등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제1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구성·운영은 지난 3월 개정된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회는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송규진 제주 YMCA 사무총장,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등을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근로관련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운영위는 앞으로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 주요사업은 ▷상담 및 교육 ▷정책 연구사업 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주, 관계공무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교육과 상담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총괄 분석해 비정규직근로자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한다. 이소진기자

대한고혈압학회와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하는

고혈압 바로알기

제주도민강좌

오후 3시 30분 부터 무료 검진 합니다

📅 행사일정

일시 2019년 5월 17일(금) 15:30 ~ 18:00

장소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진행자
15:30~16:00	혈압, 혈당 측정	
16:10~16:40	고혈압 치료 왜 중요한가?	손일석 교수
16:40~17:10	고혈압의 올바른 관리	조경임 교수
17:15~18:00	고혈압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혈압 토크쇼> “목표혈압 이게 궁금해요!”	주승재 병원장 손일석 교수 조경임 교수

● 참석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대한고혈압학회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식품안전 세미나 개최

‘식품안전의 날(5.14)’을 기념하여 당 및 나트륨 섭취실태와 지속가능식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각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도민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 5. 14.(화) 14:00 ~ 17:30

📍 장 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주제발표: 지속가능식생활의 이해와 실천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당 및 나트륨 섭취 실태 (이영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이프케어산업단 단장)

📌 종합토론: 좌 장: 채 인 숙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토론자: 오 영 주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교수) 강 인 혜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락처 : 064-721-9062)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님이 하늘을 오르니 12주년이 됐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님은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할 하는지도 모릅니다. 따스한 봄날, 초록하늘아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희준님의 도전정신을 기리고자 초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주기 추모제

2019년 5월 16일 14:00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추 모 산 행

- 선발대: 2019년 5월 18일
- 후발대: 2019년 5월 19일 08:00시(제주시립·공설운동장 시계탑앞집결, 서귀포시 08:40 여러목 집결)
- 인 원: 선착순 40명
-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 농협 351-1060-7931-53
 -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산행코스: 여러목-윗세오름-백록샘-남벽분기점-돈내고-오희준추모공원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등산입문
1998년 8월 20일 내달 히말라야 초후유(8,201m) 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루드피크(8,047m) 등정
2000년 10월 29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사파크(8,031m) 등정
2001년 4월 29일 내달 히말라야 로체(8,516m) 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 등정
2002년 5월 4일 내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 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대기복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달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등정 및 내달파티벳등단 성공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8,068m) 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8,035m) 등정
2006년 9월 20일 내달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 등정
2007년 배양해빙 원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맹호장수훈(체육훈장 맹호장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전무이사(010-3691-7771)